

필리핀 大學 社會教育의 現況 및 그 教育的 意義 : 農村指導事業 및 農村社會指導者課程을 中心으로¹⁾

姜 在 太

慶尙大學校 師範大學

The Situation and Its Educational Meaning of University Extension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Jae Tae Kang

College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main functions of university are research, teaching and social service. University would be developed only when all three functions are organically interacted. In this view, Korean universities have relatively weak in their social service function. On the other hand, Philippines universities are more developed than Korean universities.

Taking the university to the people, rather than bringing the people to the university, is the goal of extension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university. The techniques of extension have been consultation, demonstration, short courses, and correspondence of distance education. Especially in the Philippines, some agricultural universities have their own extension services besides those sponsored by the government.

Since it is thought to be closest to the ideal system for bringing about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even though Philippines system has brought about many outstanding results,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follow this pattern in Korea. Before we try to follow Philippines experience, we can not avoid the criticism on our present extension education programs that they are usually poor organized, money oriented and routinized.

In order to improve the university's extension function, universities should provide and develop various programs to meet the community's educational demands positively and should, in the long run, open its facilities to the community to become a center of lifelong education.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대학교육의 특성을 형성하는 표현으로는 고

독, 자유, 낭만, 진리, 연구, 봉사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이 수행해야 될 기능을 교수와 연구와 사회봉사의 세 가지²⁾로 규정되고 있다. 대학사회교육은 대학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회봉사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1) 이 연구는 '94 국비해외과건연구교수(공동연구)로 수행된 연구과제임. 필리핀측 공동연구자는 Xavier대학교 농과대학의 교수이며, 대학교 부설 '동남아시아 농촌사회지도자과정' (SEARSOLIN: South East Asia Rural Social Leadership Institute)의 원장인 Dr. A. Mercado 교수임.

2) 대학의 기능이 이렇게 셋으로 정립되게 된 것은 현대의 대학이 영국과 독일과 미국의 대학 전통을 이어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학은 출발시에는 교육적 기능의 증시 속에서 탄생되었다. 11세기경 유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래에 들어 대학의 사회교육³⁾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국제화, 정보화 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에서 볼 때, 이제 대학은 정규학생만을 가르치는 종래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근로청소년, 성인학습자, 고령자를 위한 학습의 장으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사회교육은 그 실시 정도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영리적이며 현실안주적이라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대학에서는 정규학생을 수용하고 가르치기도 힘이 벅찬데, 지역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기가 버겁다고 항변을 하곤 한다. 그러나 대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사회이며, 따라서 대학은 우리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책무를 맡고 있다. 특히나 다가오는 미래 사회는 급격한 기술혁신과 진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 치열한 국제 경쟁의 시대라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더욱 더 그러하다. 또한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과 사회봉사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는 기능들이며, 연구와 교육은 사회봉사에 관련됨으로서만이 그 본래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준 높은 학자와 전문가 및 시설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는 학습요구와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을 개방하고 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필리핀의 대학에서의 사회교육적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은 일찍이 미국의 식민지 경험을 가진 결과 미국식의 실용주의적 대학관을 가지게 되었고 국민들의 영어사용 능력이 높은 결과, 대학에서의 사회교육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화, 세계화의 정도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 대학 사회교육의 효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직후 대학에서 시도된 적이 잠시 있을 뿐이나, 필리핀에서는 많은 농과대학이 사회교육의 한 형태로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참여 경험하였던 필리핀의 Xavier대학의 '농촌사회지도자 과정'(SEARSOLIN)이란 국제적 차원의 사회교육기관은 지난 64년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등지의 42개 국가에서 파견된 1,800여명의 농촌사회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화, 세계화가 국정의 지표가 된 지금의 실정에서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研究의 目的

이 연구는 필리핀 대학에서의 사회교육 실상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 사회교육

업에서 근대적 의미의 대학이 처음 발족될 때는 의학계와 신학계와 정치계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역할에 초점이 두어졌다(영국식 대학의 전통). 그러나 19세기에 독일에서 근세 대학의 모범으로 일컬어지는 베를린 대학이 창설과 함께 대학은 연구와 대학원생의 훈련이란 연구중심적 기능이 첨가되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학의 사회봉사적 기능을 중시하였다(김옥환, 대학론: 대학의 이념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4 참조).

- 3) 대학 사회교육(University Social Education)을 방편적으로 대학이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대학 사회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대학 성인교육(University Adult Education: 대학에서 지역사회주민들을 위하여 교수자원을 비롯한 대학의 제자원을 제공하는 것), 대학 확장교육(University Extension Education: 대학이 제공한 일정한 장소에서 성인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위하여 교수활동을 비롯한 대학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개 학점제, 비학점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자문 등이 포함된다),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대학이 졸업생들을 위해 베푸는 교육적 활동) 등이 있다. Unesco, Terminology of adult education, 1979, Paris. p. 65.

의 활성화를 꾀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들이 탐색되었다.

첫째, 대학사회교육은 왜 필요하며, 우리나라 대학 사회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어떤 문제들을 지니고 있는가?

둘째, 필리핀 대학에서의 사회교육은 어떤 성격을 가지며, 그 유형들은 어떠한가,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대학의 체제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셋째, 필리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의 실상은 어떠한가, 농촌지도사업을 대학에서 실시함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가?

넷째, Xavier 대학의 '농촌사회지도자과정'(Searsolin)의 운영 실적 및 현황은 어떠한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다섯째, 필리핀 대학에서의 사회교육이 우리나라 대학에 주는 의미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3. 研究의 方法

이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 현지관찰 그리고 면접조사 및 협의회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1) 文獻研究

대학 사회교육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필리핀 대학에서의 사회교육의 발전과정, 현황, 유형 및 문제점 등은 기존의 대학 사회교육이나 농촌지도사업에 관련된 문헌 및 통계자료 등을 주로 활용하여 연구되었다.

2) 參與觀察

필리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교육의 여러 유형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농촌지도사업과 농촌사회지도자 과정에 대한 연구는 필리핀 현지에서의 참여관찰을 통해 수행되었다. 필리핀 체류 기간 중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필리핀의 다른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교육의 여러 유형들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갖도록 노력하였다.

3) 協議會 開催

문헌연구 및 참여관찰 등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조사된 필리핀 대학에서의 사회교육에 대해, 필리핀의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회를 가짐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II. 大學社會教育의 發達과 問題點

이 장에서는 대학사회교육의 필요성과 발달, 우리나라 대학사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았다.

1. 大學社會教育의 必要性

현대사회에서의 대학은 진리 탐구를 함으로써 사회에 유용한 새로운 학문, 사상, 기술을 창조함과 동시에, 고등교육을 통하여 지식인을 사회에 배출하여 이들이 각종 사회활동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공급해야 하는 임무 이외에, 대학의 우수한 시설과 인력들을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의 역군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임무를 새로이 부여받게 되었다. 대학에 주어진 이런 새로운 책무와 관련하여 대학이 할 수 있는 바로는 정부나 기업체의 자문에 응한다든지, 대학의 시설을 사회에 개방한다든지, 사회변혁 운동에 앞장선다든지 등의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사회교육을 통한 사회봉사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사회교육이 대학의 본질적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배경으로는 '평생교육개념의 도입'과 '지식의 사회적 중요성', 그리고 '사회민주화의 촉진'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발전과 여가시간의 증대, 직업구조의 급격

4) University Council for Adult Education, University adult education in the later twentieth century, London:UCAE, 1970, p. 75.

한 변화 등은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은 사람의 전 과정에 걸쳐서 부단히 접해야 하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학은 사회로부터의 이런 요구들을 의면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성인에게 있어 체계적이고 높은 학습의 장은 대학을 대체시킬만한 곳이 없기도 하다.

지식이란 사회의 중심적인 것이며, 사회의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그 지식을 갖고 싶어하고 요구하는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은 마치 지식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관과 같이 사회의 이러한 요구를 기피할 수 없으며 결국에 가서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의 소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학의 사회교육적 기능이란 대학은 자신들이 소유한 수준 높은 지식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의 지식욕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다 높은 질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대중화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또한 대학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개인적인 결함이라기 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절형 모델(Front-End Model)⁵⁾의 교육적 특징을 가지는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그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 시대의 지표로 삼고 있는 민주화와 평등의 의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다. 대학이 개방됨으로써 대학의 높은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화의 실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2. 大學社會教育의 發達

대학에서 평생교육, 사회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학 사회교육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간단히 알아 보면, 미국에서는 1869년에 하바드대학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여름 계절학교를 설치하였고, 1914년의 스미드-레버법(Smith-Lever Act)에 의해 주립대학체제 즉, 정부의 토지수여 및 재정지원으로 대학을 세우고 그 주내의 농촌지도사업(cooperative extension work)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었으며, 2차대전 이후부터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여 70년대 이후로는 거의 모든 대학이 대학확장 또는 계속교육의 이름 하에 성인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평생학습 운동”에 호응하여 대학을 평생교육센터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카네기고등교육위원회’의 보고서 “학습사회를 지향하여”에서는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대학교육 방식을 비판하고, 중등교육후의 다양한 형태의 비전통적 대학교육방식을 발전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의 비전통적 교육방식이란 근로 청년 및 성인을 위한 정시제 학습, 개방제 대학의 운영, 성인을 위한 학위과정의 설치, 순환교육제의 도입, 지역사회대학의 확충 등을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1873년 캠브리지대학이 대학확장 과정을 개설한 이후, 5년후에는 옥스포드대학이 그러한 형태의 사회교육을 실시했다. 그 후 산업사회의 발전에 대응해서 19세기에는 시민적 대학(London대학, Manchester대학같은 근대

5) Boyle은 인간이 평생동안 받는 교육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가 Front-End Model로서, 단 한 기간만의 교육으로 교육을 끝냈고 나머지 생애를 취업으로 보냄으로써 평생을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Recurrent Model로서 교육을 마치고 취업했다가 다시 순환적으로 일정 기간 또는 수시로 재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Continuation Model로서 한 평생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과 취업이 일생동안 계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C. Boyle, "Reflections on recurrent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 1982, pp. 5-7).

적 대학을 말함)에서도 대학사회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성인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 대학사회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은 1970년대에 들어서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종전의 “학외활동”(extra-mural studies)을 전담하는 기구를 “성인교육학부”(Department of Adult Education) 또는 “외부교육학부”(Department of External Studies)로 개칭, 승격시킴으로써 제도상 전통있는 다른 학부와 그 지위가 대등하게 되고, 성인교육적 활동 및 이에 관한 교수 및 연구가 대학이 성취해야 될 하나의 본질적인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⁶⁾.

이상에서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⁷⁾ 대학 사회교육의 발달사를 간단히 고찰해 보았는데, 이돈희⁸⁾는 발달사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첫째의 단계는 귀족사회의 대학에서 시민사회 대학으로의 개방이다. 전통적 학문의 전당은 귀족사회의 전유물이었지만 중세기의 대학은 그 자체가 시민계급의 흥기와 더불어 발생하였고 시민사회의 전개와 함께 발달하였다. 둘째의 단계는 19세기 후반에 전개된 학문중심체제에서 산업협동체제로의 개방이다. 18세기 중엽부터의 정치적 변화와 19세기에 본격화된 산업혁명은 대학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사회에 봉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째의 단계는 20세기 중반부터 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엘리트 중심의

체제에서부터 대중교육적 체제로의 개방이다.

3. 우리나라 大學 社會教育의 現況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사회교육은 1905년 보성전문학교가 최초로 야간과정을 설립하여, 주간에 취학할 수 없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한 것이 시초이다. 그 후 1909년 보성전문학교 법학과에 교외생제도를 신설하여, 매월 강의록을 우송하고 질의를 우편으로 받아 지도하며, 정기적으로 지방 순회강연을 통해 교육하였다⁹⁾

현대적 의미의 대학사회교육은 1971년에 대구 계명대학에서 주부대학강좌를 개설하였고, 서강대와 고려대는 70년대에 노동지도자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청주대와 인하대도 시민교양강좌를 같은 무렵에 열었는데, 이것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 ‘사회교육법’과 그 시행령의 제정과 함께 전국의 수많은 대학에서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원 등의 학위제 프로그램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대학내 각종 연구소와 연수원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986년에 이화여대의 ‘평생교육원’, 대림공전의 ‘산업체 기술향상 연수원’, 그리고 홍익대의 ‘미술디자인 교육원’이 설치되었고, 1987년에는 명지대학의 사회교육원, 한양대학의 평생교육원, 순천대학의 영농교육원, 한남대학의 사

6) 이상 대학사회교육의 발달에 대한 기술은 W. Prawl(et al.),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through 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Columbia, Missouri: the University of Missouri, 1984, pp. 15-1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생교육과 고등교육, 제19차 대학교육발전 학술세미나 보고서, 1988, 2 등을 참조하였음.

7) 이렇게 대학이 개방되는 과정에서 대학은 종래의 엘리트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급격한 대중화의 추세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각국에서는 고등교육 수준의 기능적-위계적 분업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미국에서의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 영국에서의 고등기술대학(higher technical college), 종합기술학교(polytechnic school)와 개방대학(open university) 등이 그것이다 이돈희, “평생교육과 대학의 이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생교육과 고등교육, 제19차 대학교육발전 학술세미나, 1988. 2. 24. p. 22).

8) 상개서, pp. 16-17.

9) 안태윤, “대학의 사회교육기능,”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편, 지역사회연구 제8집, 1982.

회교육원, 대구대학의 사회교육원, 덕성여대의 평생교육원 등이 개설되었다. 그 결과 1992년에는 37개 대학에 사회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3만 7천 923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었다¹⁰⁾.

이런 사회교육시설 중 농민이나 영농후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순천대학의 '영농교육원', 진주산업대학의 '새농촌 영농자 양성소', 연세대학교의 '농업개발원', 공주대학교의 '새농민대학강좌', 승전대학교 새마을 연구소의 '단기영농기술학교', 안동대학의 '농민교육' 등이 있는데, 이는 다른 강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수에 이르고 있다. 이 중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93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설로 설치된 이후 현재 전국의 14개 농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다. 이는 대학내에서의 대학 개방교육에 대한 요구와, 대학외에서의 대학의 농업교육에 대한 참여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여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¹⁾

4. 大學社會教育의 問題點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교육은 그 활성화의 정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¹²⁾,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사회교육이나 대학의 개방은 단지 대학이 수용하는 인원의 증대와 각종의 전문분야가 요구하는 인력의 총원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실제로 현대인이 자신의 생애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개방적으로 허용하

는 것은 아니었다. 즉,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행하고 있는 사회교육은 크게 특수대학원과정(교육대학원이나 경영행정대학원 등)과 상층지역인사들을 위한 단기과정(최고관리자 과정이나 여성지도자 과정) 및 이런 저런 형태의 공개교양강좌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대학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사회교육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부끄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특수대학원과정이나 단기과정의 경우, 대학은 기존의 시설과 인원을 활용하여 고액의 등록금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유력인사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너도 나도 앞다투어 개설하는 경향이 짙은가 하면, 주로 기업인이나 정치인 및 고급 군인들로 구성된 수강자들은 이를 자신의 신분 경력의 홍보 및 사회적 인맥의 형성에 필요한 사교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교사나 공무원 기타 기업체의 중견관리자들은 승진 등 자신의 지위상승에 필요한 자격증의 획득기회로 삼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¹³⁾.

둘째, 많은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공개강좌의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 우선 강좌내용이 지나치게 교양강좌에 치우치고 있다. 대학의 평생교육은 대학이 아니고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교육을 전수하는 데서 그 의미가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에서 평범한 교양과정 위주의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있다. 신문사 문화센터와 백화점문화센터 등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교육단체와 학원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대학이 구태여 일반사회교육기관들과 평범한 강좌를 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런 교양강좌 중심의 평생교육은 그것이 처음 시작되던 70년대에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10) 교육부, 교육부 통계연보, 1993.

11) 이창식, "대학 농촌사회교육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농업교육사편찬위원회, 한국농업교육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pp. 412-413.

12) 일례를 들면, 우리나라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등과 같이 정규의 대학과정을 개방한 형태가 아니고, 학위과정과 같은 정규과정도 방송통신대학이나 개방대학과 같이 성인 집단만을 위한 특수대학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3) 임영일, "사회상황의 변화와 한국대학의 위상," 대학교육, 1990년 11월호, p. 17.

이나마 제대로 제공하는 시설이나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면서 대학 외의 많은 사회교육단체들이 유사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양강좌 위주의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수강생의 확보가 용이하고 수입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구성과 강사 확보가 쉽기 때문이란 안이한 이유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¹⁴⁾.

세제, 대학사회교육은 사회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학습자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이 채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 대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많은 대학사회교육의 대상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사회교육의 의미란 무엇인가?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이 소유한 지식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사회교육의 학습자들은 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지나치게 현학적이고, 전문적이며, 추상적이라는 하소연을 하곤 한다. 또한 그 방법 역시 고루하기 짝이 없으며, 주입식이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한다. 모두 대학에서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회교육의 진정한 의미 즉 봉사와 대중성이라는 의미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의 대학이 여전히 외형적 양적인 팽창에만 몰두할 뿐 변화하고 있는 사회현실 속에서의 대학기능의 다면적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눈감고 있기 때문이다.

III. 필리핀 大學社會教育의 現況

연구자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지난 94년 12월 필리핀을 방문하여 지난 1월까지 13개월 가량 체류한 경험이 있다. 필리핀 체류중 처음 7개월은 마닐라 인근에 소재한 ‘필리핀국립대학 로스

바노스캠퍼스’ (University of Philippines at Los Banos)에 머물렀으며, 나머지 6개월 가량은 Mindanao섬의 Cagayan de Oro시에 소재한 사립 명문대학인 ‘사비에르대학’ (Xavier University)에 머무르면서, 두 대학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농촌지도사업을 관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회가 닿는 한 많은 대학을 방문하여 사회교육 실상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를 필리핀 대학에서의 사회교육과 농촌지도사업 그리고 ‘동남아시아 농촌사회지도자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필리핀 大學의 社會教育

1) 社會教育의 職制

대다수의 필리핀대학에서 사회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으며, 그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구의 위상과 내용은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부총장급을 위원장을 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처장급 또는 부처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학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대학사회교육처장”(director of the university extension division)이었다.

2) 組 織

(1) 역할: 대학사회교육기구의 역할 역시 무척 다양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역할들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행정관리: 대학사회교육에 관한 계획, 감독, 예산편성 및 결산 감사

행정지원: 회계, 등록, 학적, 서기, 발간 등 교수(강의): 사회교육의 제반 강좌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교육수요자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유대 및 협력: 대학사회교육과 관련된 학내외의 제반 기구 및 인사들과의 협력 모색

14) 김신일, “평생학습시대의 대학 기능,” 대학교육, 1990, 11, p. 27.

시설관리: 제반 사회교육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담당

응용연구: 현장적용 내지 실천적 연구의 추진을 위한 계획 및 지원

(2) 형태: 사회교육기구의 형태 역시 다양하였는데, 그 형태의 한 극단은 담당기구가 자체의 독립된 예산과 인력을 갖춘 형태인 반면, 다른 극단은 소수의 행정직원만 배치되어 지원과 조정기능만을 담당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었다. 실제로는 그 중간 형태를 취하는 대학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機能: 필리핀 대학이 실시하는 사회교육의 기능을 주요 기능과 보조적 기능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기능

가)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성인들에게 개방하는 프로그램

나)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보상교육을 실시하는 형태

다) 대학의 제반 인적 물적 시설 및 자원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형태

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련된 특별 기구(연구소 등)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2) 보조적 기능: 이상의 네 가지 주요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가) 예비조사: 지역사회의 교육대상자 및 교육 수요 파악

나) 프로그램 개발: 대학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민의 필요와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다) 응용 연구: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학의 연구를 보다 응용, 실천지향적으로 운영

4) 方法: 대학사회교육을 '비학위과정 방식' 뿐만 아니라 '학위과정 방식'으로도 운영하고 있었다.

(1) 학위과정: 계속교육으로서의 학위과

정은 그 대상이 직장인들이고 성인들이므로 그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간강의 보다는 야간강의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정시제보다는 시간제에 치중하고 있었다.

(2) 비학위과정: 단기과정, 개방과정, 위탁과정 등이 가장 흔한 경우였다.

가) 단기과정: 우리의 최고경영자과정과 같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수주간 또는 1학기 기간 계속하는 과정으로 대학사회교육의 보편화된 형태이었다.

나) 개방강좌: 대학의 학부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정규강좌를 성인학습자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각 강좌에 소수의 인원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수강자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수강 과목을 잘 선택하여야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 위탁과정: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의 위탁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사회교육의 과정이었다.

5) 프로그램의 類型: 아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그 유형을 일괄적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프로그램의 영역이나 내용이 보다 다양하며, 그 내용이 보다 실용적이고 실제지향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방법이 학습자들의 참여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었다.

6) 財源: 대학사회교육의 재원은 프로그램의 목적, 교수방법, 자금 조달계획 등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학습자의 등록금으로 충당되었으며, 그 다음이 대학예산, 정부지원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체로 재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교육이 교육의 논리에서가 아니라 재정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7) 人的, 物的 施設: 대학사회교육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인적, 물적 시

설의 가동이 필요한데, 대학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무실 하나에 소수의 직원만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독립된 건물을 차지하여 행정실 뿐만 아니라 강의 및 세미나실과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는 대학도 있었다. 특수한 경우로는 각 인구밀집지역에 사무실과 강의실 등을 임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강생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대학도 있었다.

2. 필리핀 大學의 農村指導事業

1) 農村指導事業의 發達¹⁵⁾

필리핀의 농촌지도사업은 전통적으로 농업관련 행정부서에서 주관해 왔는데, 근대적 의미의 필리핀 농촌지도사업은 스페인 식민지배 당시인 17~18세기경 쌀과 사탕수수, 담배 등의 생산장려를 위한 'Granjas Modelos'(모범농장)의 경험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 모범농장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실험포장적 성격을 가졌으며, 농민의 입장에서는 시범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스페인에 뒤이어 필리핀을 통치한 미국은 1902년 4월 '농업국'(Bureau of Agriculture)을 설치하였고, 1910년 이 국 산하에 '농촌지도부'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농촌지도부'는 1929년 종전의 '농업국'이 '동물산업국'(Bureau of Animal Industry)과 '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으로 나누어짐과 함께 '식물산업국' 소속으로 흡수되었다. 1936년에는 지방단위 농촌

지도담당부서가 조직되었으며, '동물산업국' 역시 1938년 자체적으로 지방단위 농촌지도담당부서를 설치하였다.

1945년 필리핀의 독립이후, 여러 부서에서 독립 분산적으로 실시하던 농촌지도사업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52년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에 '농촌지도국'(the Bureau of Agricultural Extension)을 설치하였다. 1963년 '농촌지도국'은 '농업생산성 위원회'(Agricultural Productivity Commission)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토지개혁사업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2년 '농업생산성 위원회'는 다시 '농촌지도국'으로 명칭이 바뀌어, '식품과 농업국'(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 산하기관으로 설치되어 '70년대의 녹색혁명을 주도하였다.

지금 필리핀에서는 중앙단위의 농촌지도사업은 지방단위 농촌지도사업의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실제의 농촌지도사업은 지방 농촌지도단위에서 다른 농업기관들과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중심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2) 大學의 農村指導事業

(1) 大學 農촌지도사업의 목적 및 특징

필리핀의 농촌지도사업은 농업관련 행정부서에서 주관해 왔으나, 미국의 식민지배와 함께 미국 주립대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농촌지도사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게 되었다¹⁶⁾.

15) A. R. Villoriente and S. C. Serrano, "Philippines," Agricultural extension in Asia and the Pacific,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1975, p. 96.

16) 일레로 필리핀대학 교수인 A. Samonte 박사는 1964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는 교수와 연구와 사회봉사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는 미국 주립대학 (land grant college)의 전통을 기억해야 한다. 필리핀 대학에 수용한 것이 이 철학이다. 그러나 이 철학의 수용 그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대학은 생물학과 농업과학 분야의 발전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 우리들의 미곡 생산과제는 성공적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과학적 자료 때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기술들을 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교수들은 그가 문제 또는 해답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가들이나, 농민들 그리고 행정관료들과 상호 작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F. A. Cruz, "New perspectives in community development," DAERS paper series, DAER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s Banos, 1995, p. 18.

필리핀대학의 농촌지도사업은 농업과 농촌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제적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그 지향점을 두고 있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영세농가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있었다.

Cardenas¹⁷⁾는 대학 농촌지도사업의 특징을 다음 여덟 가지로 규정하였다.

가) 이타적 영역: 농촌지도사업은 농민들을 도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 교육적 영역: 농촌지도사업은 사회교육적 활동이다.

다) 의사소통적 영역: 농촌지도사업은 의사소통적 관여이다.

라) 행동적 영역: 농촌지도사업은 농민들 사이의 행동변화를 유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마) 기술적 영역: 농촌지도사업은 새로운 영농기술을 농민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기술, 기능적 측면을 중시한다.

바) 연구영역: 농촌지도사업은 연구와 농장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대학의 연구가 보다 실제 지향적이게 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한다.

사) 소득과 전문적 영역: 농촌지도사업은 생산과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 담당자는 해당분야 농업기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아) 관리 영역: 농촌지도사업은 효율적인 관리기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2) 대학 농촌지도사업의 현황

필리핀의 대다수 농과대학에서는 어떤 형태로건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필리핀 국립대학교 농과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직제: 농촌지도사업의 주관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사회교육처'(Extension Office)에서 행정적인 주무와 전체적인 조정을 담당하는 대신, 개별 농업연구소나 농과대학의 학과 등에서 농촌지도와 관련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촌지도업무가 이렇게 학과나 연구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결과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키게 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사담당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처장과 사회교육처장, 연구소장, 농과대학장 및 학과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연구와 지도협의회'(Research and Extension Council)를 조직하였지만, 활동이 거의 중지된 상태였다.

영역: 필리핀 대학에서는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영역으로 1) 식량과 영양, 2) 농업작물, 3) 수출환금작물, 4) 에너지 사용, 보존 및 개발, 5) 농촌고용 및 생산성 향상, 6) 영세농가에 적절한 기술개발, 7) 환경관리 및 오염방지를 주요 활동영역으로 선정하였다.

활동: 대학의 농촌지도사업에의 참여 정도는 점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필리핀대학의 경우 지난 95년 1) 농민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준비 및 개발, 2) 농민이나 농촌지도사의 훈련 실시, 3) 농가방문 지도, 4) 시범포 운영, 5) 농촌현에서의 현장 연구 등의 실시를 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단기간의 농민과 농촌지도사훈련, 세미나, 여름계절학기 그리고 자료의 발간 등에 국한하고 있었다. 즉, 농촌지도사업의 본래적 기능에 부응하는 활동, 예컨대 농가방문 및 상담, 지역사회개발 활동, 현장 연구 및 시범포 활용 등의 활동은 제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체로 이런 활동들은 대학 자체의 프로

17) Virginia R. Cardenas, "Operationalizing extension education in the '90s," Daers paper series 1995,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Rural Studies, College of Agricultur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s Banos, 1995, pp. 23-24.

그램이라기 보다는 개별 교수들의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았다.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대학의 참여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리핀 정부에서는 '지역 농업교육 중심센터'란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 즉, 지역에 있는 기존의 농과대학 중에서 소재지 및 인적, 물적 시설들을 평가하여 '지역농업대학'(Regional Agricultural College)을 선정하였고, 이들 대학들이 농민과 농촌지도자의 훈련 등 농촌지도사업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들 대학들도 대부분 단기간의 훈련이나 자료 배포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평가: 필자의 경험에서 볼 때, 필리핀 대학에서의 농촌지도사업은 1) 농촌지도의 교육적 성격을 보다 발휘할 수 있었고, 2) 대학의 고유 기능인 연구, 시험과 사회봉사를 연계시킬 수 있었으며, 3) 대학의 제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연구는 이론분야에 치중하게 됨으로 대학에서 얻은 시험결과를 농가의 영농활동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우며 (특히 필리핀과 같은 소농 경제체제하에서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더 크게 나타났음), 둘째, 농촌지도는 대학의 부수적 기능에 불과함으로 영농지도를 소홀히 다루거나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 지휘감독 내지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대학 농촌지도사업은 농가의 영농활동을 시험연구의 대상으로 다루게 됨으로 농촌지도는 규모가 큰 농가

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용, 구매 및 판매사업 등과의 연계가 어려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3. 東南아시아 農村社會指導者課程

1) 沿革

필리핀의 Xavier대학 농과대학에 부설된 '동남아시아 농촌사회지도자과정'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농촌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사회 개발에 관한 제반 지식과 기술을 전수할 목적으로 1964년 마스터슨(Fr. W. F. Masterson) 신부에 의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5개국에서 파견된 1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래 30년이 넘게는 역사를 자랑하게 되었다. 그 재원은 독일의 MISEREOR 재단지원금과 훈련생 파견기관의 일부 부담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재단의 지원금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훈련생 파견기관의 부담금은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동남아시아 농촌사회지도자과정은 많은 변모를 거듭해 왔는데, 그 지역을 동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지¹⁸⁾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훈련인원 역시 40명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 과정을 거쳐간 훈련생은 1,860여명(한국은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18) 지금까지 훈련에 참여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동남아시아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타일랜드, 베트남

서남아시아 : 방글라데시, 인디아, 네팔, 부탄, 스리랑카, 파키스탄

동아시아 : 중국, 홍콩, 한국, 타이완, 티벳

오세아니아주 : 피지, 키리바티, 마리아나스, 캐롤라인 아일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솔로몬 아일랜드, 통가, 사모아

아프리카 : 부룬디, 가나, 케냐, 리베리아, 모잠비크, 나이제리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수단,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다른 지역 : 브라질, 트리니다드 토바코

2) 訓練 프로그램 주하면서 관찰한 32회 訓練生¹⁹⁾들의 訓練프로그램
 작년 연구자가 SEARSOLIN에 6개월간 거 램 및 그 일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訓練 프로그램 및 日程

1분기 : 9월 18일 ~ 10월 15일			
집단역학	(9)	오리엔테이션	(2)
의사소통 기술	(10)	실습 (선택)	(6)
발전통신론	(8)	아침농장실습	(8)
인간의 사회적 원리	(9)	개인별 발표(6)	
인간자원 개발론	(10)		
계	(56)	계	(22)
2분기 : 10월 16일 ~ 11월 19일			
협동조합론	(30)	협동조합 회계 (선택)	(20)
거시발전론	(15)	실습 (선택)	(2)
지역사회 조직론	(12)	아침농장 실습	(8)
참여연구법		개인별 발표	(2)
자료수집 준비	(18)	수업평가	(2)
계	(75)	계	(34)
3분기 : 11월 20일 ~ 12월 31일			
참여연구법 (계속)		식품공학 (선택)	(11)
자료수집방법	(17)	실습 (선택)	(6)
자료분석법	(16)	아침농장 실습	(6)
과제평가법	(14)	수업평가	(2)
논문계획서 작성법	(9)		
성차별과 발전	(10)		
환경과 발전	(9)		
계	(75)	계	(25)
4분기 : 1월 3일 ~ 2월 18일			
조직관리	(12)	수업평가	(2)
조직발전론	(9)	동창회 결성	(1)
지도자론	(10)	졸업식 준비	(6)
소기업 운영론	(40)		
계	(71)	계	(9)

- * () 안의 수치는 단위를 말함. 1단위는 90분 정도됨.
- *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정규교과목이며, 왼쪽에 있는 활동은 정규 교과목이 아니면서, 이수단위에 포함된 활동임.
- * 개인별 발표는 訓練生이 개별 국가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 조직의 설명과 함께 하는 것으로 졸업논문작성시 참조가 되게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음.

19) 작년(95년)의 訓練은 95년 9월 15일부터 96년 2월 15일까지 5개월 과정이었는데,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케냐,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필리핀, 솔로몬 아일랜드,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케냐 등지에서 파견된 44명의 訓練生(한국인은 2명)이 과정에 입소하였다.

3) 프로그램의 評價

연구자는 SEARSOLIN 훈련을 지난 78년 경험한 바 있다. 그 당시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작년의 프로그램을 간단히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변화 사항

가) 훈련의 목적이 농촌사회의 일선 지도자 양성에서 관리자 양성으로 바뀌었음.

나) 졸업논문 작성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졸업논문은 훈련생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귀국하여 3년동안 농촌개발을 위해 수행할 과제를 참여연구법의 방법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음.

다) 과목을 문제 내지 주제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경향이 높았으며, 그 내용 역시 현장 지향적이었음.

라) 강의담당자를 대학내부의 인사들 뿐만 아니라 대학 외부,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선정하려는 노력이 보였음.

(2) 문제점 : 이 프로그램이 3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²⁰⁾.

가) 과목을 주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훈련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고, 현장 적응력을 고양할 수 있음. 그러나 담당 강사로서는 밀도있는 강의를 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도 야기하고 있었음.

나) 외부강사에의 의존 정도가 높은 결과 강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그들의 바쁜 일정관계상 수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들의 일정에 맞추는 수업계획 때문에 과목의 체계적 통일성이 부족하였음.

다) 강의 제목과 강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끔 강의 준비가 극히 소홀한 강사들도 발견할 수 있었음.

라) 행정직원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오랜 경험을 토대로 유능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음. 그러나 너무 오래 근무한 탓인지 무사안일과 타성적 역할 수행을 감지할 수 있었음. 특히 행정직원들은 훈련생들이 지금은 비록 피훈련인이지만, 그들의 국가에서는 인사임을 감안하여 지나친 통제는 삼가해야 할 것이었음.

마) 강의가 전반적으로 급변하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과 유리된 경우가 많았음. 또한 농업문제를 지나치게 농업내부적 차원에서만 다루려는 경향이 지나쳤음.

바) 전체적으로 훈련이 합목적성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 즉, 프로그램의 전체적 목적이 잘 드러나지 않았으며, 전체 강의가 유기적인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했음.

사) 강의방법은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칭찬할 만함. 그러나 지나치게 학생들의 참여에 치중한 결과 강의의 밀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음.

4. 필리핀 大學社會教育의 特徵

이상에서 연구자가 경험했던 필리핀의 대학 사회교육을 대학사회교육의 일반적 형태, 농촌 지도사업 그리고 동남아시아 농촌지도자과정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사회교육의 실시 정도는 높았지만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특히 사회교육을 지나치게 영리위주로 운영한다든지, 사회교육에 중점을 두다보니 대학의 본래적 기능인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 '농촌사회지도자 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로는 SEARSOLIN, Proceeding of the SEARSOLIN review workshop; Raichung, Taiwan, April 18-24, 1994, Cagayan de Oro City, Philippines: SEARSOLIN, 1994가 있음.

그러나 사회교육 그 자체의 측면에 국한해서 본다면 필리핀은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뒤쳐져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우리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필리핀은 서구화가 우리보다 빨랐기에 현대적 형태의 대학 역시 빨리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미국 식민지의 경험으로 인해 미국식의 실용주의적 대학관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 대학사회교육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²¹⁾.

첫째, 필리핀에서는 대학의 사회봉사적 기능에 대한 대학인들의 인식이 우리와는 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의 기능을 학문과 연구중심으로 간주하는 결과 대학이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대학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대학은 정규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른바 비전통적 학생인 다양한 성인 학습자를 위해서도 대학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보다는 많이 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대학은 어느 때나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적절한 학습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계속 교육의 넓은 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대학체제의 개방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대학이 사회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자신이 기존의 경직된 체제와 관행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이는 대학 내에서 정원의 자율조정, 입학전형의 자율결정, 성인학습자를 위한 특별전형, 시간제 운영, 다학기제 등 학사제도를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비학점과정, 교외과정, 공개강좌, 대학확장 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사회교육을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대학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사회교육기관은 대학의 행, 재정적 체제로부터 소외되어 충분한 지원이나 관심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대학사회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의 교무처, 학생처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여기에는 전임 또는 겸임의 교수 및 사무직원을 두고 교내 및 교외 사회교육에 종사하게 하며, 독립건물(숙박시설 포함)을 갖추고 있는 곳도 많았다.

네째,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대학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백화점 식으로 잡다하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으나, 대학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새로운 사회교육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대학도 있었다.

다섯째,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가 보다 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실용적이고 일상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를 자극하며,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등의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있었다.

여섯째, 필리핀은 우리보다 국제사회에의 개방이 빨랐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가 되고 있었기에 대학사회교육의 국제화 정도도 아주 높았다. '동남아시아 농촌지도자과정'처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사회교육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었다.

IV. 大學의 社會奉仕機能과 관련된 誤解들

이상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필리핀 대학의 사회교육은 우리보다 많이 발전되어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학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필리핀에서 경험한 바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대학에서 사회교육이 부진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대학내부의 보수주

21) 필리핀의 대학사회교육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자료를 얻으려면, 정찬남, "필리핀의 사회교육: 고등교육 기관의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교육협회, 사회교육연구 제19권, 1994, pp. 86-123을 참조 바람.

의적 성향의 작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즉, 종래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는 상아탑적인 대학관, 즉 대학의 기능은 연구와 교육과 사회봉사의 세 가지로 뚜렷이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연구와 교육의 기능이 사회봉사의 기능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사회교육을 경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1. 研究와 教育과 奉仕機能과의 關係

우리는 흔히 대학의 삼대 기능인 연구와 교육과 봉사의 기능은 뚜렷이 구분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기능이 이루어지는 행위 그 자체만을 보았을 때는 뚜렷이 구분되는 것 같기도 하다. 연구는 교수가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외로이 하는 작업인 반면, 교육은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이다. 그리고 사회봉사기능은 교수가 대학 밖의 사람들과 행하는 활동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연구와 교육과 사회봉사는 엄연히 다른 기능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학교수가 왜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가 하는 목적을 생각하게 되면, 이 세 기능간의 상호구분은 무의미해진다.

연구를 왜 해야 하는가? 순수 연구든 응용 연구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대학교육의 수혜자들인 학생들은 곧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사람들이므

로 대학교육의 직접적 수혜자는 학생이지만, 사회는 대학에서 교육받은 학생들로부터 기여를 받으며, 이것은 대학의 교육기능이 사회봉사기능과 연관됨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은 연구의 주제를 사회적 문제 속에서 찾고 있기도 하며, 사회적 문제를 교육의 주제로 삼기도 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에서 발견된 사실들은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전수된다. 문제를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연구와 교육과 사회봉사기능의 구분은 애매하기 그지없게 되며, 더 나아가 대학의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이 결국 사회봉사로 연결되지 않으면 연구와 교육의 의미가 희석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삼대 기능인 연구와 교육과 봉사를 유기적 연관성에서 파악하게 되면, 종래 우리가 대학사회교육과 관련하여 가졌던 우려 즉 대학을 사회에 개방함에 따라서 대학의 본질적 모습인 수월성 추구 내지는 학문적 전당으로서의 위상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불식된다. 교육은 봉사이며 진리의 추구 역시 봉사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대학의 기능을 사회에 확장하는 것은 탐구의 수준을 격하시키거나 고고한 학문적 이상을 현실적 요청에 의해서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대학이 사회에 보다 많이 개방됨으로써 대학의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象牙塔으로서의 大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대학을 『상아탑』 즉, 대학이란 현실세계의 여러가지 일이나 쟁점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격리된 학생과 교수들이 고

22) 이돈희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사회교육이 부실한 이유를 다음의 네 가지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첫째는, 대학이 전통적으로 지녀 온 “학문의 전당”이라는 권위와 위세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유지하려는 보수주의적 성향의 작용이며, 둘째는 고학력 현상의 역기능에 대한 제도적인 제어장치이며, 셋째는 대학의 완전개방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재정적 능력의 한계성이며, 넷째는 교육제도의 정책입안자들은 대학을 사회투자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사회복지의 사업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 왔다는 것이다 (이돈희, “평생교육과 대학의 이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생교육과 고등교육, 제19차 대학교육발전 학술세미나, 1988. 2. 24. pp. 16-17.

립되고 자율적으로 이끌어가는 특별한 곳이므로, 대학은 사회와의 관계를 될 수 있는 한 삼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상아탑이라는 말은 대학이 자체의 막중한 본질적 과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사회와 관련을 맺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대학은 역사적으로 보면, 독자성과 자주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현실문제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으며, 민족과 국가의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중세 프랑스에서는 대학이 전체 교회회의나 귀족회의 또는 삼부회의에 대표를 파견했던가 하면, 교황권이 분열에 빠졌을 때,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열렸던 『콘스탄쯔 대종교회회의』(1414~1417)에는 파리대학, 하이델베르크대학, 그리고 폴란드의 크라카우 대학의 교수들이 각국의 국왕 및 주교 대표들과 함께 참석하여 정치적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도 있다. 이 외에도 대학은 당시의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 국왕과 교황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가지 충돌을 해결하는데 항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중세의 교회가 타락하였을 때, 옥스포드대학의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된 개혁운동이 프라하 대학으로 전파되어 후스의 개혁운동을 야기시켰고 드디어 비텐베르크 대학의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촉발되었다²³⁾.

이렇듯 대학이 귀족사회의 전유물로서 『학문의 전당』이었을 때도, 대학과 대학인 그리고 그 학문은 항상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대학이 대중교육적 체제로 개방되었고, 대학과 사회와의 간극이 거의 없다시피된 오늘날에서도 상아탑이라는 미명하에 대학과 사회와의 분리를 주장하는 견해가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대학이 상아탑이라는 말은 대학이 학문탐구와 교육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없이 독자성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일 뿐이

다.

3. 大學의 機能으로서의 社會奉仕機能

대학사회에서는 교수가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높이 인정하지만, 사회와 관계되는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 활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교수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대학사회의 모습은 교육과 연구와 사회봉사 기능은 뚜렷이 구분되는 기능이며,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대학상에 고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논한 바와 같이 연구와 교육과 사회봉사는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대학은 사회안에서 존재하고 사회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사회적 실체임으로 대학의 연구와 교육은 궁극적으로 사회봉사에 이어져야 하며, 사회봉사 기능은 그 자체로서도 대학의 목적달성을 위해 중요한 기능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을 천시하는 어떤 견해도 용납하기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체이든 그것이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것인 한에 있어서는 다른 개체와 관련을 맺어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점에서 볼 때, 대학도 본질적으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살아나는 기관이다. 대학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의 생성과정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학이라는 유기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사회와의 교섭을 필요로 한다. 대학이라는 유기체는 자립성과 의존성을 반드시 동시에 구유하며 자립성 측면만 강조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학은 어떠한 정황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이란 의미는 하나의 당위인 동시에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은 '중요한가?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다루어 질

23) 이상신, "대학의 사회적 책무," 대학교육, 1990, 9(통권 47호), 65쪽.

것이 아니라 '대학이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봉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대학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식의 보다 적극적인 질문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대학교육을 엘리트의 지식 충전소로 간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교육의 기회 확대가 학력의 인플레이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대학교육 기회의 보편화를 반대한다. 동시에 이들은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대학교육의 기회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대학은 학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문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대학이 개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학교육을 소수가 독점하기 위한 회귀재로 우상화시킴으로써 대학은 상아탑이어야 한다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의 민주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에게 대학교육의 기회가 보편화되어야 한다. 대학교육 기회의 보편화는 지식 분배 불평 등의 문제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대학교육도 이제는 더 이상 특권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하나의 학습단계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대학교육은 누구든지 거처야 될 교육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²⁴⁾.

V. 結 論

대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사회이다. 따라서 대학은 우리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책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사회봉사와 관련하여 가장 본질적인 것이 대학사회교육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사회교육은 그 실시 정도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영리적이며 현실안주적이라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대학에서는 정규 학생을 수용하고 가르치기에도 힘이 벅찬데, 지

역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기가 버겁다고 하소연을 하곤 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필리핀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규 강의와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틈을 내어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였다. 그것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봉사가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봉사를.

문제를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대학에서 사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연구와 교육기능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반면 사회봉사기능을 폄하했으며, 따라서 대학의 사회교육은 대학의 주변적 부속물로서만 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과 사회봉사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는 기능들이며, 연구와 교육은 사회봉사에 관련됨으로서만이 그 본래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제부터는 대학에서의 사회봉사기능, 나아가 사회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이제 대학은 정규학생만을 가르치는 종래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근로청소년, 성인학습자, 교령자를 위한 학습의 장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사회교육은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니라 다른 사회교육기관들과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하며, 대학사회교육의 진정한 의미인 '봉사'와 '대중성'이라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대학인들이 대학의 사회교육 기능을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대학인들은 과거의 상아탑적인 대학관에서 벗어나, 현대의 대학은 학문연구와 진리탐구라는 본래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봉사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을 일반사회인들에게 학습의 장으로 개방하는 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자세를 확립해야

24) 한준상, "교육의 보편화와 고등교육 기회의 민주화," 대학교육, 1990, 10, p. 21.

할 것이다. 둘째, 사회교육을 통해 대학을 사회에 개방할 때에는 능력위주의 개방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성과 도덕성에 있어서의 개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무슨 연수, 무슨 교육 하는 식의 잡다한 백화점식의 교육프로그램 개설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대학이 지닌 도덕적 탁월성의 기준을 지역사회인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인들이 자신들의 사람의 질을 높이는 데에 대학을 활용하고 대학으로부터 배우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학교육의 대중화, 즉 양적인 확대가 질적인 저하 즉, 수월성의 저하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대학의 양적인 확대와 사회로의 개방은 질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대학사회교육이라 하여 학문적 수월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어찌보면 의무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수업에 참여하며, 대학졸업 후에 현장경험을 충분히 쌓은 성인들이야말로 학문적 수월성을 더욱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대학사회교육은 대중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에서의 혁신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개방할 때에는 학습자 대부분이 성인학습자임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일상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도 계열적 획일적인 교육내용은 피하며, 교육방법에서도 기존의 정규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대신에 시청각테이프, 경험학습, 견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VI. 參 考 文 獻

1. 교육부, 교육부 통계연보, 1993.
2. 교육부, 교육월보, 1992. 8.
3. 김옥환, 대학론: 대학의 이념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4.
4. 최운실, 백은순, 최돈민, 한국사회교육의 실상과 미래전망 연구, 연구보고 pp. 92-23, 한국교육개발원, 1992.
5. 한국고등교육연구회, 고등교육 연구, 1991. 7 (제3권 제1호).
6. 한국농업교육사 편찬위원회, 한국농업교육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제86-7-52호, 1986. 12.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1985. 3. (통권 제14호).
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1990. 11. (통권 제48호).
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생교육과 고등교육, 제19차 대학교육발전 학술세미나. 1988. 2. 24.
11. 한국사회교육협회, 사회교육 연구, 제19권, 1994.
12. 한상길, 미국의 대학확장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0.
13.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s in Asia and the Pacific, Report of an APO study meeting, Tokyo, 1993 and 1994.
14. Cardenas, V. R., Operationalizing extension education in the '90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Rural Studies, College of Agricultur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s Banos, 1995.
15. Extension Committee Report,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Rural Studies, UPLB, March, 1991.
16.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 1982.
17. Prawl W. et al.,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Through 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Columbia, Missouri, University of Missouri, 1984.
18. SEARSOLIN, Proceeding of the SEARSOLIN review workshop; Raichung, Taiwan, April 18-24, 1994, Cagayan de Oro City, Philippines: SEARSOLIN, 1994.
19. UNESCO, Terminology of adult education, 1979, Paris.
20. University Council for Adult Education, University adult education in the later twentieth century, London: UCAE, 1970.